항상 딱따구리가 나무 쪼듯 쪼아서 뚫고 들어가 앉듯이 해야

☞ A17면에서 계속

이 모두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시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유스럽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사십구 년 설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를 보아도 상대에게 기도를 하고, 상대에게 원을 세우고, 상대를 믿고 스승을 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아니 됩니다. 석존이 여기 계시다 할지라도 석존의 고깃덩어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세워야 석존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바로 내가 됐다 석존이 됐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몰라서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꽃도 내가 되고 나도 꽃이 되고, 석존도 내가 되고 또 내가 석존이 되는 겁니다. 또 수많은 중생들 이 안에서도 내가 됐다가 그네들이 됐다가 맘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생각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스님이 와서 묻기를 "스님!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길래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없는 겁니다." 하니까 "올해는 잘 보는 사람이 그러는데 물에 빠져 죽을 운수라고 하면서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없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만약에 물귀신이라면 물귀신한테 말려서 죽을 거고 선자라면 물귀신하고는 멀 겁니다. 스님의 마음이 물귀신이니 물귀신한테 말려 죽을 수밖엔 더 없지 않습니까?" 하니깐 고개를 끼우뚱하고 가십디다.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다시 오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누군지 난 이름도 모릅니다마는 아니, 물가엘 안 나가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 초대를 받고 가다 보니깐 그 초대받은 집에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물로, 스님이 오시니까, 말짱히 씻어 놨던 모양입니다. 고무신을 신고 올라가시다가 물에 미끄러져 가지고는 그냥 곤두잡이를 쳐서는 허리를 다쳐서 몇 달을 못 일어났다고 하십디다. 그래도 물귀신이 없느냐 이겁니다. "아, 이렇게 봉변을 당했는데도 없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스님이 물귀신한테 말려서 죽을까 봐 애를 쓰는 마음이기 때문에 물귀신한테 말린 거지, 스님의 그 마음이 물귀신이지 다른 게 물귀신이 아닙니다. 스님 마음이 물귀신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바로 몸이 말린 겁니다. 그래도 알아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그냥 그러냐고 그러고 가십디다. 그리고 여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셨는지 모르죠.

그랬듯이 이게 어줍지 않은 말 같지만 여러분이 한 번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금방 이 장사가 망해서 훌떡 넘어가게 생겼는데 한생각을 몰아서 그냥 쫙 해 버리니까 활기를 띠고 일어났답니다. 이 한생각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은 한생각을 우습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생각이라는 것은 공덕을 말합니다. 한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한생각 속에 이 내면의 의식들이 한데 합해 주고 외부의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데 합쳐 주는 한생각입니다.

개별적인 여러분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혼자 하고, 혼자 살고, 혼자 했고, 혼자 벌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원리가, 물리가 터져야 우리가 공(空)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공해서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발을 떼어 놓고 움죽거리고 눈을 뜨고 귀를 떠서 듣고 이렇게 살아도 혼자 그렇게 듣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혼자 그렇게 봤다 들었다 산다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 속에서 '어허! 너 아집도 참, 꽤 많구나.' 이렇게 아마 되풀이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작용을 해 줘서 네가 다니는 줄 모르고 허,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네가 이렇게 했어?' 하고 아마 '너 그러면 좀 망해 봐라.' 이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집을 갖지 말고 공심(共心)으로, 공용(共用)으로, 공체(共體)로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알면 모두가 유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갈고리를 쥐고 찍으려고 하더라도 아주 상대방까지 유해지고 찍는 것이 슬며시 놔진다 이 소립니다. 모두 악해졌던 마음들이 선해져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화(化)해서 바뀐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익하고 상대도 이익해져서 인과응보에서 벗어나고 또 유전성에서 벗어나고 영계성에서 벗어나고, 모든 게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균성에서도 벗어나고, 이 일체 업보 속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자유스러워진다 이겁니다. 누구가 "자유스러워라. 자유스럽지 마라." 이런 억압적인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이쪽으로 가면은 구덩이에 빠질 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서 안에서 이쪽으로 가게 해서 스스로 잘 이룩하게 만드는 자동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런 자유스러운 생활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상대를 모두 원망 안 하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돌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내 탓으로 돌려라 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내 탓으로 돌립니까?" 합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잘하고 이걸 떠나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벌써 내 탓이죠. 항시 얘기합니다 마는 소가 가다가 언덕이 없으면 비비지 않습니다. 언덕이 있기 때문에 비비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이 태어난 자체가 바로 탓입니다. 잘못하고 잘하고 간에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질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질문을 적어 왔습니다만 할까 말까 했는데 스님이 앉으시면서 질문하시라고 용기를 주셔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평소 '말이 한데 떨어지고 있다' 고 애타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 항상 말이 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신 후 없는 나를 앞세우신 후 설법하심을 보여 주시며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여 참자기를 만나면 비밀이라는 용어가 탄생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어 여쭈고자 합니다.

세간에서 악담이나 비방은 당장 따귀 한 대라도 돌아오니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지만 한마음 공부를 하여 마음의 힘이 생겨 자신의 말이 무심코 법이 됨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알지 못하므로 공든 탑이 무너지듯 잘될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떤 때는 남을 위한다는 말이 외려 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나친 충성은 역적이 될 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간사한 말이나 남을 헐뜯는 경우, 그 대가는 즉시 알 수 없고 그게 사실인 것으로 아는 부화뇌동한 사람들에게까지 공통 업을 만들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지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신선으로 수행 중에 무심코 한 번 화를 내었더니 그곳 고을에 삼 년이 가뭄이 들어 많은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고, 이런 일로 인하여 내생에는 사슴의 몸을 받아 축생으로 보낸 일도 있다는 기록을 옛날에 읽을 때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가 다 있나 했으며, 부처님을 이상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스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땐 부처가, 생각을 내면 왜 법이 되고 법신(法身)이 되어 말이 업이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저 등 너머 산이 또 있는 줄 몰랐더니 큰스님께서 "법은 행이 따르는 거야." 하시는,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닌 도리를 말씀하심에 한생각에 따라 영계성, 윤회성, 업보성이 나타나고 십이인연이 생김을 이해하게 되니 생각이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음에 놀랐으며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뜻과 계(戒)·정(定)·혜(慧)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말임에도, 길잡이가 못하게 할 때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도 비밀을 지켜야 됨은 무슨 도리가 있기에 그러하며 이러한 것을 두고 천기누설이라고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업식에 속아 자승자박하는 경우가 한데 떨어지는 것이라면 유(有)의 행은 하되 유위에 젖지 않는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큰스님 말 다했소?

질문자1(남) 예.

큰스님 하하하. 아니, 그게 무슨 질문이오? 용건만 딱 얘기하라는 거지.

질문자1(남) 일반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말임에도 길잡이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뜻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다시 한번 말하겠소?

질문자1(남) 일반적이고 평상적인 이야기 같은데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에서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뜻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아, 못하게 하는 것도 자기요, 하게 하는 것도 자기니까 그건 자유스럽게 그 가운데서 알아서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행하는 거지. 그 비밀도 비밀 아닌 것도 그 속에 다 있어요. 그것을 말로 가르쳐서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들어서 안 되는 게 있고 들어서 될 일이 있고, 들어서 새길 일이 있고 들어서 할 일이 있고, 봐서 할 일이 있고 보았으면서도 보지 않게 버리는 게 있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질문자1(남) 예. 스님 법문 중에 생각을 내어서 맡겨야지, 그냥 맡기면 그 집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어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에 처음에는 유위적으로 이해가 되었고 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소상히 알고자 합니다. 즉, 내가 없는데 누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되는지요? 금전적 걱정이 날 때 생각을 내어 보면 길잡이가 아예 마음조차도 내지 못하게 하여 건성적 생각만 할 뿐 마음으로 굴릴 수 없어 맡길 것도 없고 생각 내는 그 자체가 오히려 둘이 되는 것 같아 퇴보함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내게 하는 놈을 관(觀)해 보면 생각 내는 놈이 없고,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면 그 이름조차도 둘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군더더기가 되어 거부감이 듭니다.

큰스님 이, 묻는 거를 그렇게 길게 물으면 어떡합니까? 하여튼, 그 말뜻은 우리가 배우는 측에 있어서 맡겨 놓는다. 이렇게 맡겨 놓는 그 선을 세워야 우리가 마음이 안유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나 걷지도 않고 뛰려고 한다면 안 돼요.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걷지 않고 뛰려고 하거든요. 내가 진짜 걸어 보고 내가 뛸 수 있어야 뛰는 것이지 걸어 보지도 않고 뛰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댁이 그 뜻을 알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묻질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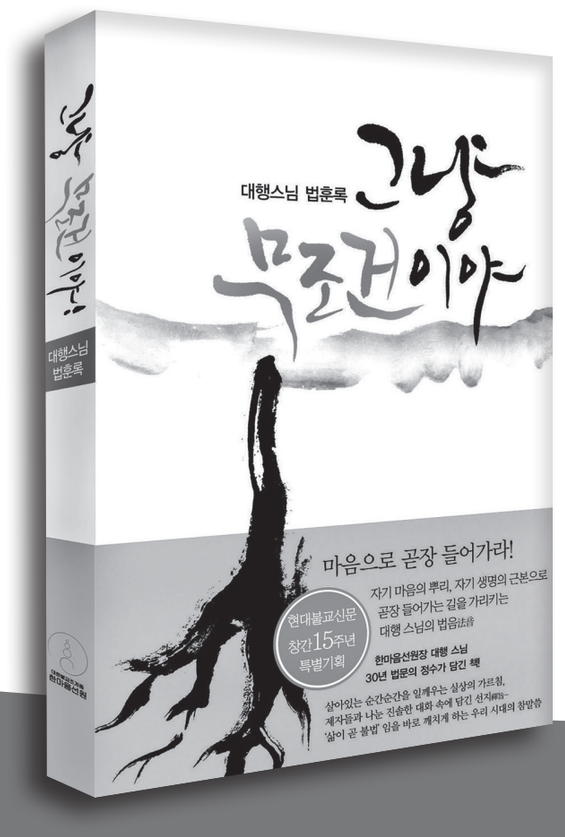
내가 "놓을 것도 없다. 놓을 것도 없는 데에 놔야 된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돌려놔라. 돌려놓지 못하면 입력된 게 그대로 나온다." 입력돼서 나오는 거는 피할래야 피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돼서 나오니까 그것을 다시 바꿔서 입력을 해라 이 소린데 이 세상은 굴리면서 살고 구르면서 살고 끝없이 바로 이어져요. 굴림을 모른다면 바로 나라는 게 세워지기 때문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세울 게 있기 때문에, 놓을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세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놓기는 뭐를 놔요. 그건 벌써 나라는 거를 세우는 거라고요. 한 번 다시 정립해서 놓을 게 없든 놓을 게 있든 몰락 놔요. 이게 틀리다, 이게 옳다 이러지 말고 말이에요.

(다음 호에 계속)

> 개별적인 여러분은 없습니다.
> 개별적으로 혼자 하고, 혼자 살고, 혼자 했고, 혼자 벌었고 이런 게 없습니다.
> 그런 원리가, 물리가 터져야 우리가 공(空)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2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